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2차 심사평

2026 소리프론티어 실연심의를 마치고

지난 6월 24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제 25회 전주세계소리축제, 제 16회 소리프론티어의 마지막 선발 과정인 실연심의가 있었습니다. 서류와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과 함께한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소리프론티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장르거점화 유통지원사업 <2026 소리 NEXT>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소리 NEXT는 국내외 음악 관계자 30여 명을 공식 초청하여, 소리프론티어로 선발된 팀과 소리 초이스로 선정된 팀의 쇼케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음악 작품의 유통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선발된 4팀은 축제 기간의 쇼케이스를 통해 국내외 유통의 실질적인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더불어 7월 중순 진행되는 합숙형 워크숍 '슈퍼워크'에서는 예술적 성장은 물론, 음악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익히게 됩니다. 오늘 실연심의에 참여한 팀이 밝힌 참여 동기는 물론 경연의 열기 속에서, 소리프론티어가 지향하는 방향이 분명하고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3년째 소리프론티어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심사평을 대신해 저의 언어로 많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팀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역시 경연 과정 안에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선발과정에 함께해 주신 다섯 분 심의위원님의 심의평을 받고 나니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통해 소리프론티어가 만들어가는 흐름을 더 또렷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보내주신 심의평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전체 심의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소리프론티어는 단순한 경연이 아닙니다. 선발된 몇 팀만을 위한 잔치도 아닙니다. 국악, 혹은 전통예술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넓혀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에 아름다움을 조금 더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결선 무대까지 함께하지 못한 여섯 팀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무대는 끝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소리프론티어는 계속됩니다. 내년에도, 또 그다음 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천재현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

계명국 심사위원

3년째 소리프론티어 실연심사를 맡으며 올해는 예전과 크게 다른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많은 참가자들이 소리프론티어의 성격과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성을 공감한 상태에서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데뷔한 지 10년 이내라는 제한도 없애면서 이미 중견을 눈앞에 둔 40대 연주자들에게서 이러한 공감대가 많이 느껴졌는데, 이것은 그간 소리프론티어가 꾸준히 가지고 온 방향성이나 의지가 한국의 전통음악 신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리프론티어의 장점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자기의 음악을 채워가려는 의도로 지원한 지원자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리프론티어는 자신만의 음악 행보를 해오다가 벽에 부딪치거나 혹은 한 자리를 맴돌고 있는 뮤지션들에게 중요한 통과 의례로서 그 의미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참여자들의 수준은 높아졌다. 물론 10년이라는 제한을 풀어서이기도 하지만, 젊은 연주자들도 대체로 기대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본인만의 음악적 방향성과 타겟으로 하는 시장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춘 음악을 준비해나가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여전히 수도권 지역과 지역 연주자 간에 발생하는 전통음악에 대한 다른 시각과 수준, 그리고 디렉팅 없이 연주자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단체의 한계들은 계속 보이기는 했지만, 1등을 뽑는 경연이 아닌 소리프론티어는 이러한 갭을 줄여나가는 마중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선에 진출한 네 팀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여섯 팀에게는 응원의 함성을 보내며 심사의 평을 마친다.

김미소 심사위원

올해 소리프론티어에는 신진과 경력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고루 참여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팀 간의 균형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선정 과정에서는 현재의 완성도나 경력의 길이보다, 소리프론티어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자신의 음악과 활동 방향을 새롭게 확장하거나 재정립하고자 하는 팀, 그리고 소리프론티어 프로그램의 지원과 네트워킹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참가자들 대부분은 단순한 경연이나 콘테스트가 아닌,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서 소리프론티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소리프론티어가 아티스트의 성장과

변화에 동행하는 플랫폼으로서 그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러한 변화된 포지셔닝이 전통예술계 안에서도 널리 인식되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심사위원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2 차 실연심사는 1 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창작음악팀들이 실제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공연 경쟁력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심사는 단순히 연주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무대에서 구현되는 예술적 설득력과 공연 구성력, 관객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었다.

올해 실연심사에서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의 폭이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판소리와 민요, 연희 등 전통예술의 다양한 요소를 현대적인 음악어법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으며, 전자음악과 록, 재즈, 월드뮤직은 물론 퍼포먼스와 연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결합한 무대들도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각 팀이 단순히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음악적 언어를 구축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무대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최종 선정된 4 개 팀은 무엇보다 음악적 완성도와 안정적인 연주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무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개별 연주자의 기량은 물론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연을 만들어내는 상상블 능력이 돋보였으며, 작품의 흐름과 긴장감, 무대 연출, 퍼포먼스까지 공연예술로서의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음악과 움직임, 연희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낸 팀들은 공연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현재의 완성도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오늘날 창작음악은 공연을 넘어 음원, 영상 콘텐츠, 국제 페스티벌, 해외 월드뮤직 시장 등 다양한 유통 환경 속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었는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전통음악만의 차별성과 독창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반면 일부 팀들은 뛰어난 연주력에도 불구하고 무대 전체를 하나의 공연으로 완성하는 구성력이나 작품의 서사적 흐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다. 실험적인 시도가 오히려 음악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거나, 반대로 안정적인 연주에 머물러 새로운 창작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창작음악은 기술적인 완성도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작품이 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공연 언어로 관객에게 전달하는지가 결국 무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소리프론티어는 새로운 창작자를 발굴하는 경연을 넘어 한국 전통음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 플랫폼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4개 팀은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와 예술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폭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이번 무대에 함께한 모든 팀들 역시 한국 전통음악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창작자들이다.

앞으로도 소리프론티어가 실험성과 예술성, 대중성과 시장성을 균형 있게 갖춘 창작음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악 창작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전통은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될 때 생명력을 얻는다.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과 상상력이 한국 전통음악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

박준우 심사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소리프론티어는 긴 시간 자신의 음악에 관하여 고민해온 이들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이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이들이 함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이들이 어떤 정체 혹은 어떤 발전을 해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을 해온 시간과 무관하게 모두 가능성이 있었고, 개개인의 음악적 역량을 국내외 시장이나 환경, 지원 혹은 기획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정수 심사위원

먼저 전주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열 팀의 연주를 감상했는데요. 모두 각자의 개성이 있는 팀들이었습니다. 그 중, 지금 음악 시장의 변화 안에서 의미 있고, 인큐베이팅을 통해 변화·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팀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선발된 팀이 이 과정을 통해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수적으로 적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여 아티스트들의 나이대가 넓은데, 지금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은 1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라, 앞으로의 10년을 생각한다면 좀 더 반짝이는 젊은 세대가 앞으로 더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다시 또 기대하게 됩니다.